

# 정세균 “단일화 없이 완주” 이낙연과 단일화설 ‘일축’

### “총리·국회의원 같이 한 것 말고 접합점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설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출신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완주한다는 뜻이다”면서 “완주는 끝까지 간다

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호남의 경쟁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에 관심이 많고 노선도 같은 길을 걷어와 가능했다”면서 “이낙연 후보와는 접합점이 찾기 어렵다. 총리를 같이 했다거나 국회의원을 같이 했다는 것 말고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이) 특정 후보에게 거의 승산이 기운 것처럼 보였지만 예비경선을 마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판이 흔들리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경선을 끝내려면 두달만 정도 남아 있는데 변동 있을 것이며 아마 판이

요동칠 거다.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향후 지지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의 1260명 교수가 이름을 걸고 지지를 해주고 이광재 후보가 제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 1만 명이 지지선언해주고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지표명을 해줬다”면서 “가장 확장력 있는 후보, 특정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민주묘지 참배와 관련해 “진정성에 의구심 든다.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이 될 리 없는 분이고 제1야당의 후보도 될 가능성 없다고 본다. 광주시민들이 냉정히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순욱기자



고개 숙인 서욱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여순사건특별법 공포 후 희생자 규모 파악 시급

### 소병철 의원, 민·관·학 혼연일체로 희생자 찾기 총력 절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 규모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원회)은 최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와 구례를 차례로 방문했다.

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공포와 정식 시행, 법 시행 전 처리해야 할 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희생자 규모 파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9일 소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공포 후 내년 1월께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법 시행 이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친 뒤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만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건 발발 경위의 신중한 규명 등도 중요하지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한 숙제다”면서 “공식적으로 희생자 규모의 윤곽이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1기 진화위에서 2006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해 밝힌 1237명의 희생자 수는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밝힌 1만 1131명의 11%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희생자 규모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피해가 컸던 전남 동부지역의 마을 곳곳이 모두 협조해야 하고, 이장을 지낸 분들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민·관·학계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두 모아야만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게 소 의원의 판단이다.

여기에서 피해 규모의 큰 틀이 만들어지면, 뒤이은 조사 및 진상규명 기간 연장 필요성과 배·보상 등 후속 사항은 제주 4·3사건처럼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상 조사 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소 의원은 “조사 기간 2년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난 때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신고 기간 1년을 꼭 채워서 신고 접수수를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조사를 위한 중

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에 진상조사를 개시하면 조사 기간을 3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 시행 전까지 준비 기간 6개월과 보고서 작성 기간 6개월까지 합치면 최대 4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추가조사 필요시에도 법 개정으로 기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령 사업도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각 지자체가 협의해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각 지자체가 여순법의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자체 간에 경쟁하기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유가족·시민단체와 지자체·유관기관의 상생과 협치가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혹시라도 특별법 통과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일부 있을지라도 여순사건으로 인해 지역에 쓰인 역력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역사적인 과업이다”며 “한마음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송고한 시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이낙연 전 대표 부인 김숙희씨 7주째 광주·전남서 봉사활동

### ‘1000원 밥상’·재래시장 돌며 남편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 배우자의 내조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부인 김숙희 여사가 가장 활발하게 광주·전남지역을 돌며 남편 지원에서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역임한터라 얼굴이 많이 알려진 김 여사는 7주째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도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있는 ‘1000원 밥상’ 해프는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 이 식당은 11번째 먹음직스러운 1000원 밥상으로 굶주린 이들을 돕고 있어 전국적으로 화제되고 있는 곳이다.

김 여사의 봉사는 주1회 한반씩 이날 5주차째라고 이 전 대표측은 귀띔했다.

김 여사는 광주 남광주시장에서도 커피가관 조수로서 한달여간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재래시장과 장애인복지관, 노인건강타운,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돌며 봉사활동으로 이 전 대표를 적극 알리고 있다. 김 여사의 종횡무진 활약 덕분인지, 이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최근 전남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장인상 빈소를 이 지사 대신 조문했다. 이 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문을 대신 한 것



이다. 김 씨는 조만간 다시 광주·전남으로 내려와 내조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다른 후보들의 배우자들 역시 속속 여권의 뒷받침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호남지역 ‘반문 정서’로 한때 곤욕을 치렀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정숙여사가 지역을 돌며 민심을 돌리는 데 일조를 했다”면서 “대선 후보자의 내조 경쟁은 앞으로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